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개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인터뷰

“아이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어린이들에게 오감만족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과학적 마인드를 함양시켜주기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문화 공간인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정식 개관했다.

이에 본보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찾아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의 특징과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북도 창의체험관을 건립하 소 개한다면?

1990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낙후된 전라북도어린이회관 대신 새롭게 조성한 어린이 전용 공간이다. 특히,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체험하고 놀면서 과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복합체험형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온전히 어린이만을 위한 안전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찾아오고 싶고,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꾸렸다.

▲건립과정을 꼼꼼히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 습니까?

오래전부터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관심이 많았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장 때에도 전북 최초의 어린이 특화도서관인 아중도서관을 건립했고, 건지산 숲속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어린이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그런데 전북에는 어린이들이 뛰놀고 체험하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

는 창의적인 놀이 공간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어린이 체험공간을 찾아 전국 각지로 시간과 돈을 따로 들여가며 찾아다니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이런 이유로 도지사에 출마하자마자 전국 최고 수준의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선정했다. 장기간의 준비 끝에 잘 마무리해 도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었던 사업이었고, 또 미래 전북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창의’를 ‘체험’ 한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지?

인류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활약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과 창의는 놀



이와 체험에 의해 증폭되고 깊어진다.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지향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욱 키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꼭 추천하고 싶은 체험이 있다면?

어린이마다 개성과 재능이 다양하듯 우리 체험관의 시설도 다양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영유아 전용시설과 미술·사진·자동차정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역할놀이시설, AR과 VR을 활용한 4차산업 체험공간 등

상설체험시설과 과학·예술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체험시설도 마련돼 있다.

모든 시설이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만큼 시설 하나하나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래전부터 ‘관심사’로 출마하자마자 공약 선정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VR 체험이 ‘특별함’으로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만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복합 체험형 놀이문화공간으로 최근 어린이 체험활동의 추세를 반영해 전국 최고 수준의 창의체험시설로 조성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이라는 점도 차별화된 지점이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약자들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국가공인 배리어프리(BF, Barrier Free, 무장벽) 인증을 받았다.

또, 가상 현실(VR)과 증강 현실(AR) 등 어린이의 창조성을 키울 수 있는 미래산업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어린이 창의체험관만의 특별함이다.

서울 상상나라, 경기 어린이박물관, 대구 어린이회관 등 여러 지역이 운영 중인 어린이 공간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개관 이후에도 어린이창의체험관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앞으로 운영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4년 후면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린다. 지금 어린이창의체험관을 이용할 아이들이 4년 후면 스카우트 잼버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즐겁게 뛰놀고 멋진 꿈을 키워서 2023 세계잼버리의 주역으로서 세계 청소년들과 당당히 소통하고 이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우리 전북의 어린이뿐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들이 오고 싶은 전국 최고의 어린이 복합체험형 놀이문화 공간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대산학협력단, 전북여성문화센터 등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의 창의를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할 생각이다.

아울러 전주동물원과 건지산,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꿈과 건강, 힐링과 여유가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은 아이 키우는 보람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바이오산업 활성화 간담회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1층)에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으로 전북 경제 견인을 위한 전북바이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 전북도, 산업현장의 기업인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함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전북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담회에는 바이오 등 산업현장에 있는 기업을 대표해 ㈜엔디, ㈜LFF, ㈜비타 3개 기업이 참석해 사업 발표 시간을 가졌다.

㈜엔디는 맥반석에서 추출한 농축 규소를 이용한 100% 수용성 규산염 원천기술(특허)을 보유 업체로 세계적인 핵심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수산·해양 분야 등 BT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LFF는 고추, 시금치, 토마토 등 아열대 대체형 유기농자재류 핵심기술과 경제성에 대해 발표했다.

레이더를 활용한 ㈜비타는 고정밀 거리측정, 교통모니터링, 조명제어, 몸짓 인식 등 스마트 인프라, 산업계 기기 자율운전 등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LX 드론교육센터 전북 유치 위해 나서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성명서 발표 등 계획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건립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를 위해 21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LX는 지난 8월에 경북과 '드론교육센터'를 경북에 설립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경북으로부터 경주 등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를 제안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특위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해 경과보고를 받고 추후 LX 드론전문교육센터 유치 관련 특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송지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1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리 및 정주여건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 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

11)은 LX의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부지 관련 논란은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를 기대한 도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 취지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LX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간담회 이후에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유치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LX 항의방문, LX 이사회에게 서한문 전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경제 위기극복 '총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군산지역위원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예산정책위의 회에 참석했다. 신영대 위원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10만평 추가 조성, 일자리 창출형 대체품산업 생태계 구축, 새만금/SOC 예산 조기 확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1인가구의 전기안전, 스스로 참견합시다!

혼자사는 나에게는 참견해 줄 매너도 없으니까 내가 꽂은 전기코드 누가 대신 뽑아주지도 않으니까 전기안전, 스스로 참견합시다

전기기적 참:경시점

KECO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일지파 | 경기지원부 서양주(내선주인) | 011023

변진희 | 경기지원부 김관우(주인) | byunjinhye

이시호 | 경기지원부 김관우(주인) | good.hoon